

통상교섭본부장, 미(美)관세영향 기업들과 직접 소통

-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 방문,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 주재 -
- 100여개 기업 참여 1:1상담회에서는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수)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 상담체계: (1단계) 수출전문위원 상담(온라인 병행) → (2단계) 맞춤형 심층상담(무역관·관세법인 연계) → (3단계)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 지원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①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②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③대체 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후속 관세협상과 마련 중인 기업지원대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간담회 이후 여 본부장은 KOTRA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개최된 동행사는 미 관세행정 동향과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여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15명의

관세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상담회 현장에서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관세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경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은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해소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질서 급변 속에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등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김현동 (044-203-4033)



참고 1

관세대응 119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요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8.13(수) 14:20~15:40 / KOTRA

* ①관세대응 119 방문(KOTRA 1층) → ②관세 영향 기업 간담회(KOTRA 10층) → ③관세 상담장 방문(IKP 1층)

○ (참석자)

- (정부/유관기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KOTRA 사장 등
- (기업) 디케이이노시스(자동차부품), 휴스틸(철강), 경동나비엔(기계), 토모큐브(전자), 유니언스(알루미늄/반도체 패키징), PFD(화장품), 녹수(건축자재) 등 7개사

○ (주요내용)

- (관세대응 119) 현황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간담회) 관세 영향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상담회)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1:1 상담현장 방문

* 코트라-관세청 공동 주관, 설명회 200여개사, 상담회 100여개사 참여

□ 진행 순서(안)

시간 (80')	주요 내용	비고
관세대응 119 현장 방문 (14:20~14:30, 1층 로비)	08' · '관세 대응 119' 현장점검 및 현황 청취	통상교섭본부장
	02' · 기념촬영	참석자
기업 간담회 (14:35~15:20, 10층 대회의실)	05'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05' · KOTRA 관세 대응 지원 현황	KOTRA
	30' · 기업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참석자
	05' ·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상담현장 방문 (15:25~15:40, IKP 1층)	15' · 관세 상담회장 시찰 - 상담회 참가기업(2개社) 애로 상담	통상교섭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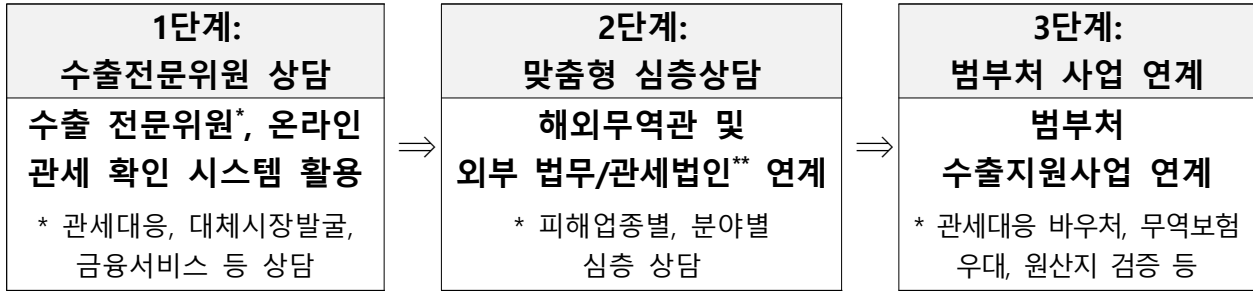
참고 2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 개요

- (개요) 비상수출대책 후속조치로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신설, 운영 중('25.2.~)이며 애로 난이도에 따라 3단계 심층 상담 실시

* (대표전화) 1600-7119 內 관세대응119 전용 채널 마련

< 관세대응119 상담지원 체계 >



* 총 17명 중 6명을 119 전담 상담원으로 지정, 종합상사나 대기업 무역업무 퇴직자를 파견직(2년)으로 채용해 운영(상근, 풀타임 근무)

** 관세법인(커스앤)과 자문계약으로 관세사 2인 본사 상주, 심층상담 제공(7.16~연말)

- 기업의 심층 상담 수요 대응 위해 상시 대면 상담 서비스 추가(8.1~)

* KOTRA 본사(1층)에 <관세대응119 현장 종합상담실> 설치, 사전예약제로 운영

- (주요동향) 개설 후 8.11일까지 총 6,446건 상담 접수

< 「관세대응 119」 상담 세부내역 >

구 분	관세 확인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기 타*	합 계
전체(2.18.~8.11.) 누계	4,377	50	210	400	1,409	6,446

* 기타는 인증·규격, 지원사업, 단순문의 등

- (상담내용) 초기 단순 관세율 문의에서 심층 문의* 증가 추세

* ❶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❷원산지 판정 기준, ❸파생상품 관세 산출 방식 등

- (상담주체) 중소·중견기업(2,543건, 39.8%) 뿐만 아니라 관세법인(824건, 12.9%), 대기업(172건, 2.7%) 등이 상당수 문의

* (관세법인) 포고령 등 영문 자료 검색 경험 부족, 정보 출처 및 재확인 중심
(대기업) 자사 제품 또는 사업에 대한 심층 문의 및 정보 수집 중심

참고 3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및 상담회 계획

□ 추진 배경

- 美 관세 조치(8.7.일 상호관세 15% 발효) 최신 동향 설명
-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 제공 및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실질적 수출 애로 해소 지원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8.13.(수) 14:00-17:30 / KOTRA 국제회의장(B1), IKP 1층
 - (참가기업) 설명회 200개사, 1대1 상담회 100개사
 - (내용) 최신 美관세 부과 조치 현황 및 관세 실무 정보 설명 및 상담
 - 원산지 판정, 관세 부과와 법적 분쟁, 美 세관 사전심사제도 설명
 - 1대1 맞춤형 관세 컨설팅 (사전 신청 기업 대상 15명 전문가 상담)
-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미국)변호사 등이 관세 실무 및 분쟁 관련 기업 애로 현장 상담

□ 시간계획 (설명회 및 상담회 동시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설명회 14:00-16:00		
14:00-14:05 (5')	○ 개회	KOTRA/관세청
14:05-14:25 (20')	○ 美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 사항	KOTRA
14:25-14:50 (25')	○ 최근 미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수출기업 유의사항	관세청
14:50-15:00 (10')	Coffee Break	-
15:00-15:20 (20')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한국원산지정보원
15:20-15:40 (20')	○ FTZ(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한 관세 절감 전략	중소기업국제관세 무역자문센터
15:40-16:00 (20')	○ 관세 대응 바우처 활용 방법	KOTRA
상담회 15:00-17:00		
15:00-17:00	○ 관세 관련 전문가 상담 (미국 변호사·관세사, 한국 관세사)	KOTRA